

유해진(49)과 류준열(33)이 봉오동 전투를 치르고 돌아왔다. 이들이 지난해 강원도와 제주도 일대에서 재연한 독립군의 처절한 전투사가 7일 개봉한 영화 '봉오동 전투'(감독 원신연·제작 빅스톤픽처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화는 1920년 중국 지린성 일대에서 무장투쟁을 벌인 독립군이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의 기록이다. 농부였던 유해진은 빼앗긴 고향땅을 되찾으려 칼을 든 독립군 해철 역으로, 류준열은 사명감으로 뭉친 독립군 분대장 장하 역으로 각각 나섰다. 뜨거운 여름, 처절했던 역사의 현장인 봉오동으로 관객을 인도할 두 배우를 1일 서울 삼성동 한 카페에서 각각 만났다.

“이 역 맡아도 되나 걱정” “누이 빼앗긴 심정으로”

- 유해진

- 류준열

“의미 있지만 제가 맡아도 되나. 양심적인 면에서 고민했습니다.”

유해진은 '봉오동 전투' 뿐 아니라 '말모이', '1987', '택시운전사'까지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 속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민초'의 삶을 주로 연기했다. 부담감과 책임감 속에서 그는 “그 분들의 대변인이 될 수 있을까, 해는 안 될까 걱정했다”고 털어놨다. '봉오동 전투'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되찾으려는 인물을 연기한 그는 “모든 면에서 조심스러웠지만 그동안 그려지지 않은, 희생된 독립군 이야기의 의미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100년 전 독립군의 대승인데 역사책에는 아주 짧게 남았어요.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저를 영화로 끌어들이었어요. 승리한 전투에 통쾌한 매력도 느껴졌고요.”

유해진은 극중 독립군 무리의 리더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독립군들은 구운 감자 하나를 놓고 각자 고향에서 이를 어떻게 부르는지 설명한다. 소박하면서도 애잔한 장면은 당시 독립군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상징한다. 처절한 전투를 주로 그리지만 영화에는 의외의 유머도 적절히 녹아있다.

“생사를 오갔지만 늘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한 상황을 담당하지 않게 풀어주는 것도 독립군 리더의 역할 아니었을까요.”

유해진은 '봉오동 전투'의 첫 시사회 전날, 불면의 밤을 보냈다. 1997년 영화 데뷔작인 '블랙잭'의 시사회를 앞두고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에 시달린 기억이 여전한,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했다.

“시사회 직후 기자회견회를 하잖아요. 어휴~, 발가벗는 느낌이에요. 오죽하면 ‘기자, 간, 다음에’ 하고 싶다고 말하겠어요. 하하!”

유해진은 '봉오동 전투' 출연작 가운데 최연장자다. 데뷔 시절 선배 허준호로부터 “40대가 되면 외롭다”는 말을 들었다는 그는 “이번 현장에선 (조)우진이와 술을 자주 마셨지만 때면 내가 있어도 되나 싶었다”며 웃었다.

“영화 처음 시작할 땐 200개 정도 상상을 준비해 현장에 갔어요. 끝나면 ‘이렇게



7일 개봉하는 영화 '봉오동 전투'의 주연 유해진(왼쪽)과 류준열은 부담감과 책임감 속에서 “독립군 이야기의 의미만 생각했다”고 돌아섰다. 사진제공 | 쇼박스



독립군 해철 역 유해진

그분들께 해는 안 될까 노심초사
승리한 전투 통쾌한 매력에 끌려

할 걸 ‘이건 왜 안했지’ 후회했죠. 30대 후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이제 조금 느슨해졌어요.”

‘봉오동 전투’는 산악전투를 주로 그리는데 만큼 고지대에서 촬영했다. 그는 늘 걸어서 오르내렸다.

“명상의 시간이지요. 주로 잡생각이지만. 하하! 마음 맞는 사람들과 촬영장에 있는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독립군 장하 역 류준열

나라 잃은 아픔 상상조차 힘들어
절벽 추격전 바지 찢어지고 난리

‘나라 잃은 슬픔’을 표현하는 배우의 마음은 어떨까. 모든 상황을 직접 경험해 연기로 드러낼 순 없지만 식민의 고통을 그려내야 한다면 좀 더 책임감 있는 준비가 필요할지 모른다.

류준열도 그랬다. 부모를 잃고 하나뿐인 누나와도 연락이 끊긴 독립군 장교를 연기하면서 그는 “어머니를, 누이를, 빼앗긴 심정으로 접근했다”고 돌아섰다. 그리고 ‘봉오동 전투’를 통해 ‘아직

보여줄 게 많은 연기자’라는 사실을 또 다시 증명한다.

“그동안 출연작 가운데 청춘 이야기가 많아서인지 ‘청춘의 고민’을 대변한다는 말도 들었어요. 이번엔 달라요.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감정을 표현하는 인물이니깐요. 벽치고 슬픈 시대의 감정을 가진 인물이지요.”

영화의 대부분은 독립군과 일본군의 전투 장면. 거의 모든 촬영이 야외에서 진행됐다. 때면 짧게는 30분, 길면 1시간씩 산을 오르는 강행군에 나섰던 그는 “오르내리는 일은 비우고 채우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분들(독립군) 덕분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또 나라를 되찾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촬영 준비하면서 자료도 찾아보려 했지만 기록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류준열은 ‘뽕반’ ‘독전’ 등을 통해 액션연기를 소화했지만 이번엔 고지대와 절벽을 맨몸으로 달리며 총격전까지 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을 선보인다. 그는 “절벽 추격전을 찍을 땐 두꺼운 군복 바지를 몇 겹씩 입었는데도 찢어지기 일쑤였다”고 돌아섰다. 컴퓨터그래픽이 아닌 ‘날 것’의 액션연기였다는 자신감 섞인 고백담도 꺼냈다.

‘봉오동 전투’는 항일 메시지로 무장한 영화다. 잔혹한 일제에 맞선 독립군의 처절한 투쟁은 최근 확산하는 반일감정과 맞물려 시선을 붙잡는다. 아무리 일본 한류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일본 팬이나 활동가를 의식했다라면 선풍 출연을 결정하지 못했을 작품이다. 류준열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건 맞다”면서도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는 것 외에 부수적인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학 때부터 ‘배우는 시대를 반영하는 얼굴’이라고 배웠어요. 제 생각도 같아요.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 건 행운 같아요.” 이해리 기자

연예

11

2019년 8월 7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봉오동 전투’는 1920년 일본 정규군에 맞선 독립군의 처절한 전투를 고스란히 담았다.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쇼박스

? 유해진

▲1970년 1월4일생 ▲1997년 서울 예술대 연극과 졸업 ▲고교 2년 시절 청주 기성극단 청년극장 입단 ▲극단 목화단원 ▲1999년 ‘주유소 습격사건’ 이후 2002년 ‘공공의 적’으로 주목 ▲2005년 ‘왕의 남자’, 2006년 ‘타짜’, 2009년 ‘전우치’ 등 흥행 ▲2010년 ‘이끼’·대한민국영화대상 남우조연상 ▲2014년 ‘해적:바다로 간 산적’·올해의 영화상 남우조연상 ▲2015년 ‘베테랑’ ▲2017년 ‘택시운전사’ ▲1987’ ▲2018년 ‘말모이’ 등

? 류준열

▲1986년 9월25일생 ▲2013년 수원대 연극영화과 졸업 ▲2015년 영화 ‘소셜포비아’로 데뷔 및 주연 ▲2015년 tvN ‘응답하라 1988’로 스타덤 ▲2016년 MBC ‘운빨로맨스’·연기대상 신인상, 영화 ‘글로리데이’ ‘양치기들’ ▲2017년 영화 ‘택시운전사’ ‘더 킹’ 등 ▲2018년 ‘독전’ ‘리틀 포레스트’ 등 ▲2019년 ‘뽕반’ ‘돈’ 등, 미국 뉴욕아시아필름페스티벌 라이징스타상 등 수상

코코랜드 키즈카페 체인점 모집

담당자: 010-6479-3236

막걸리 양조장 매매

경기서부지역 **성업중인**
막걸리 양조장 팝니다.
010-3796-5670

행복과 성공의 비밀

아들과 딸들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지혜!
행복과 성공의 비밀
현재는 선물이다!
“아버! 엄마가 아들·딸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책!”
전국 유명 사점과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에듀스 020-3296-1184

신용불량자 요금연체자

갤럭시 S10 5G / 아이폰XS MAX 할부개통 가능

휴대폰 현금 당장 쓰실분
현금 100~390만원 즉시지급
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 백화점 상품권증정
010-2439-2555 전국 출장 가능 (제주도 가능) (주최바른통신)

못 받은 돈!

이자까지 받아드립니다

재산조사(선불)
채권추심(후불)

010-6579-3377

전국 출장가능 / 무료상담